



교육연합신문



2026년 7월 15일 (수) 제448호 (창간 2009년 1월 22일)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인터뷰-차성민 부산 연제구의회의장 ▶4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차성민 의장이 제10대 연제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며 새로운 의정 비전을 제시했다. 차 의장은 구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에듀인포커스-김석준 부산교육감 ▶8-9면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민선 교육자치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부산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선택받은 의미를...



윤건영 충청북교육감 “학교안전 총력” ▶12면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0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학생과 교육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방학 전 학교별 예방교육과 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감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유지해야”

부산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눈앞

정부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추진 반대 성명... “교육재정은 헌법적 가치, 미래교육 흔들려선 안 돼”

작년보다 40% 늘어... 관광지출액 서울 이어 전국 2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7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7월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시도교육

청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성명서를 통해 교육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적 재원 구조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부금 산정 방식이 정부의 재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

육 현실을 단순한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은 학생수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정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AI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과 돌봄, 안전, 맞춤형 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기한 ‘교육청 재정 여유’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적립기금이 최근 4년 동안 21조 4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배소비세 일몰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고교 무상교육 재

원 부담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27년 이후에는 매년 최대 8조 8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이 이미 영유아교육과 평생교육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도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로운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려면 권한과 재정,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계도 교부금 개편 반대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이 불안정해 질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

히 학령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교육재정 축소는 학교 운영과 지역 교육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 마련 ▲교육재정을 재정 효율성이 아닌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따라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근식 회장은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충분히 대화하겠다. 그러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재정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현장 소통 행보 나서

‘대중교통 프로젝트’ 광주서 시동... 성덕초·성덕중 방문 애로사항 등 청취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9일 광주 광산구 성덕초등학교와 성덕중학교에서 하반기 첫 ‘대중교통(敎通), 학교방문’ 현장 소통 행보에 본격 운영했다.

‘대중교통’은 김대중 교육감이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감 시절부터 추진해온 현장소통 프로젝트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광주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광주지역 첫 소통 현장으로 선정된 성덕초등학교와 성덕중학교

는 각각 43학급, 37학급, 학생 수 848명, 922명의 대규모 학교다.

이들 학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인접해있어 대부분 학급이 과밀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성덕중의 경우 학년별 학급이 12개 이상에 달하고, 2학년은 1개 반에 평균 27.1명이 배치되는 등 광주지역 평균 24.7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성덕초와 성덕중에서 수업 참관을 하고, 이어 교직원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학교는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증

원 ▲특별실 및 체육시설 공간 부족, 등하교 시간 교통지도 인력 필요 ▲행정업무 폭증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성덕초 박순복 교장은 “학생들의 사고와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보니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교사들의 보다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의견



을 토대로 광주·전남 지역별 맞춤형 교육정책을 정교화하고, 통합 교육청만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장기 학교 배치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통합교육청의 핵심 가치는 지역 맞춤형 균형발

전과 교육 자원의 극대화”라며 “광주의 과밀 해소와 전남의 교육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해, 어느 한 곳 소외된 없이 두 지역 학생 모두가 최상의 교육을 누리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석 기자 2580news@daum.net

조달청 우수제품

성능인증

1등급 GS인증 1등급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인증

산업융합혁신제품

우수발명품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주식회사 케이시스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 케이시스 스마트 자동화 공장

SMT라인 | 아outed 라인 | 어셈블리 라인 | 에이징룸

조달청 LED 전광판 계약·납품·구축 건수 3년 연속 1위

국내 최초 안내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600건 이상 구축'

14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특허' 보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적 기술 파트너'

국무총리상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정부 조달청장 표창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녹색인증 유공포상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

광주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더케이타워 1F~6F

서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센터리움 IT타워 411호

대전 | 대전 유성구 복용동로 43 도안더리비스그니서 749호

광주 | 광주 북구 청파로208번길 43-10 마루원BC지식산업센터 1301-B호

제주 | 제주시 서문로 33

미국 | 732 S 6TH ST, STE R, Las Vegas, NV 89101, USA

공장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9(모라동) 백상스마트밸리 B1, 1F, 5F, 6F

부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현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서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센터리움 IT타워 B110호

제품문의 1600 - 6187

여수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온 감동의 선물

초·중학교 대상 ‘해설이 있는 음악회’ 운영… 클래식부터 전통음악까지 문화예술 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은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운영하며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특별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선사했다.

지난 9일 음악회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내 초7교 중3교를 선정하여 진행됐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환경에 따른 문화예술 경험의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의미를 두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공연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설이 있는 음악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음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문 연주자들은 공연 중간마다 악기와 음악 장르에 대한 설명, 곡에 담긴 이야기와 시대적 배경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며 공연의 몰입도를 높였다. 학생들은 음악 속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함께 느끼며 예술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 내용 또한 국악, 현악, 성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학생들에게 폭넓은 예술 경험을 제공했다. 전통음악의 아름다움과 서양 클래식식의 풍성한 선율, 성악이 전하는 감동적인 무대가 어우러져 학교 강당은 작은 음악회장이 됐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학생들은 공연 내내 뜨거운 호응을 보이며 예술이 주는 즐거움과 감동을 만끽했다.

학교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한 교사는 “해설이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졌고, 예술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학생들 역시

“국악과 클래식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음악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연을 보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에도 이런 공연이 또 왔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백도현 교육장은 “예술은 학생들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소중한 교육 자산”이라며 “이번 찾아가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꿈과 감동을, 교직원들에게는 위로와 힐링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태석 기자 2580news@daum.net

김유동 구례교육장 “선진 모델 성공적 지역화 추진”

교장·교감부터 전문직·교사 ‘섬지플 마실’ 직무연수… 자발적 수업 혁신 ‘새물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동)은 지난 7월 8일 관내 초·중·고 교사, 학교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섬지플 마실’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구례교육지원청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실 수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례형

미래 수업 모델 구축에 나섰다. 기술과 장비 중심의 에듀테크를 넘어 ‘학생 주도성 키움’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행보다.

‘섬지플 교육 마실’은 구례교육지원청이 자체 운영하는 단계별 교원 역량 강화 로드맵이다.

지난 3월 교원 전문성 성장을 시작으로 4월 전문직 역량, 5월 독서

인문, 6월 AI 디지털 연수에 이어, 이번 7월은 ‘학생 주도성 수업 디자인 및 실천 융합 설계 워크숍’을 주제로 심화 실습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관리자(교장·교감)와 교육전문직원까지 한 자리에 모여, 학교 현장의 수업 혁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거버

넌스 중심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김유동 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은 일회성 강의를 탈피해 학교 관리자부터 전문직, 현장 교사까지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2학기 수업을 직접 기획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우수 선진 모델의 성공적인 지역화를 통해 구례형 미래교육과 정 모델을 정립하고 ‘실제-실천-나눔-성장’이 선순환하는 자발적 연구 문화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社 說

딥페이크·가짜뉴스 판치는 세상 ‘미디어 리터러시’ 국가가 책임져야

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편리함의 그늘은 깊고 어둡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넘쳐난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이미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위험은 개인의 조심심성만으로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시민의 정보 판단 역량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하다. 마침 국회에 국가 차원의 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가려

내는 능력은 이제 생존의 문제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동안의 교육은 파편적이었다. 부처마다 사업이 쪼개져 실효성이 떨어졌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도 제대로 녹아들지 못했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 예산과 인력을 집중에 교육의 질을 확실히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 안 아이들만 챙겨서는 안 된다. 학교 밖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이

더 위험하다. 이들은 디지털 격차를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내몰리기 쉽다.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교육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생성형 AI 시대의 미디어 교육은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조작인지 가려내는 비판적 사고의 훈련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토대인 신뢰가 붕괴한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미디어를 판단하는 강력한 방패를 국민에게 쥐여주는 일은 국가의 책무다.

서태경 부산사상구청장, 생활밀착형 노인 복지 실현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시행…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추진

부산광역시 사상구(구청장 서태경·사진)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7월 9일 제정·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담을 덜고 건강과 품위를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침체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복지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상생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태경 사상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리

는 것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따뜻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어르신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상구는 앞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어르신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황요규 기자 hog@

강은희 대구교육감,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 선언

취임식 열고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이 함께하는 범시민 운동 추진계획 발표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7월 1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제12대 대구광역시 교육감 취임식을 열고, 제3기 핵심 교육비전인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 범시민 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취임식은 ‘교육수도 대구를 넘어 세계가 배우는 글로벌 교육도시’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 함께하는 범시민 실천운동의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강 교육감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생,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이며, 세계와 경쟁하고 협력하는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대구교육의 새로운 목표라고 밝혔다.

로벌 교육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 교육감은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를 학생은 세계 어디서나 역량을 발휘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교사는 세계 수준의 수업을 실천하며, 학부모와 시민은 교육의 동반자로 참여하는 교육도시로 정의했다. 또한 교육행정은 글로벌 수준의 청렴성과 신뢰를 갖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계적 교육문화 조성 ▲시민 거버넌스 확대 ▲글로벌 수준의 투명한 교육행정을 3

대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 기업, 대학,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교육수도 시민실천단’을 운영한다.

시민실천단은 학교를 신뢰하는 문화와 학생을 응원하는 문화,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문화,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학생은 질문과 탐구를 실천하는 글로벌 인재로, 학부모는 교육동반자로, 교사는 교육전문가로, 시민은 교육기부와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5대 시민실천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 교육감은 “교육을 학교 울타리를 넘어 도시 전체의 문화와 경쟁력으로 확장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세계가 배우는 글로벌 교육수도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사, 240만 대구시민 모두가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대구신성초등학교를 찾아 학교급식 식재료를 점검하고 등굣길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취임식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상영했다. 사월초등학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공연, 대구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샌드아트 공연도 이어지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의 비전을 공유했다.

김병선 기자 kbs@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우선구매대상 “우수발명품”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XingQ Table

조달청 G2B 식별번호
24823144 / 24860039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크리플

Creative People

www.creple.co.kr

“호남 반도체 공급 65만톤, 가뭄 비상용수”

박수영 의원 “3년 전 호남권 가뭄으로 세운 물 계획 반도체 용수로 둔갑, 국정조사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일일 65만 톤 용수 세부 공급 방안’이 지난 2022~2023년 당시 호남권의 극심한 가뭄당시 정부가 세운 ‘가뭄대책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2023년 10월 기후에너지 환경부(당시 환경부)가 발간한 ‘영산강·섬진강유역 가뭄백서(2022~2023)’(이하 가뭄백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반도체 산단의 수원으로 제시한 5개 댐(동북·주암·장흥·보성강·나주)은 모두 불과 3년 전 극한가뭄 당시 고갈 위기에 몰렸거나, 광주·전남 주민 용 생활용수 및 기존 산단 공급용 계획 물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7월 7일 밝혔다.

지난 30일 기후부는 ▲동북댐 30만톤(여유량 5만톤 및 댐 증고 25만톤) ▲주암댐 5만톤(과다 배분 미사용량) ▲장흥댐 10만톤(여유량) ▲보성강댐 10만톤(발전용수의 공급용수 전환) ▲나주댐 10만톤(농업용수 대체공급 절약분)으로 총 일일 65만 톤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정부가 발간한 가뭄백서에 따르면, ‘동북댐·주암댐’의 경우 ‘여유’분 자체가 부족한 ‘고갈’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핵심 식수원인 동북댐은 지난 2023년 3월 당시 제한급수 위기에 봉착했고, 영산강 하천수를 용연정수장으로 보내는 긴급공사로 저수위 도달 시점을 가까스로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3년 4월 동북댐은 14년 만의



최저 저수율 19.1%(예년 57.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암댐은 지난 2022년 8월, 준공 이후 최초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해 251일간 지속됐고, 2023년 4월에는 역대 최저 저수율 20.3%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서에서는 주암댐이 2015년 이후 5년간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하는 등 “점점 더 가뭄에 취약해지고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장흥댐 역시 지난 2023년 4월 유효저수율이 24.7%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고, 나주댐은 2022년 당시 33.1% 최저 저수율을 기록하였다. 보성강댐은 실제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발전을 멈추고 총 3,070만톤을 주암댐에 긴급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서에 따르면, “이런 대책이 없었다면 주암댐은 2023년 3월 18일 저수위에 도달해 47일간 저수위 이하에 머물렀을 것”으로 지적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장흥댐의 여유량 10만톤은 이미 지난 2023

년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상 영산강유역 6개 시군(광주·목포·나주·화순·함평·영광 등)의 주민 물공급을 위한 기본대책으로 수립됐다. 지난 2023년 4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 이후 총사업비 2844억 원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연계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것이다. 이에 지난 30일 발표된 장흥댐 여유량은 이미 3년전 ‘가뭄 대책’에 따라 배정된 물량과 중복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주암댐 여유량 역시 반도체가 아닌, 여수·광양산단 용수 공급을 위해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 설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흥댐을 통해 확보한 주암댐의 여유량은 지난해 3월 총사업비 2,128억 원 규모의 여수 지역 공업용수도(광양4단계)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면서 하루 10.6만톤의 주암댐 용수는 여수·광양 산단 용수계획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백서는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영산강·섬진강 유역 호남권에서 가장 긴 281일의 가뭄이 발생했고, 향후 기후위기로 이 같은 가뭄 등이 더욱 크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기존 ‘2040 국가수도 기본계획(2022)’에 따른 여수국가산단 용수 수요 증가 등 “주암댐의 용수 공급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대체수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수년 전 이미 ‘한계’에 처한 댐 용수계획이 지난 30일 공급방안에서는 ‘과다하게 배분되어 미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불과 3년 전엔 ‘비상 가뭄대책’이었던 똑같은 물이 이번 ‘호남 반도체 용수공급계획’에 포함된 것”이라면서 “정부는 가뭄 시 광주·전남 주민들의 식수·생활용수 비상재원을 끌어다 반도체 용수로 쓰겠다는 끼워맞추기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번 호남 반도체 용수공급 방안 65만톤은 그야말로 졸속 발표에 불과하다”면서, “수백조 원이 투입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업 기초 계획이, ‘주먹구구’로 되지 않는 수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기자 ljh@

김 홍 제 의 목 요 칼 럽

교사를 바라보는 교실에서 토론과 질문 중심의 교실로

“교육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뀌지 않는다”

한국 학생은 하루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낸다. 교실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질서와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디지털 교과서도 도입했고, 인공지능 교육도 시작했다. 하지만 반세기 전과 크게 변하지 않은 풍경이 있다. 교사는 칠판 앞에서 설명하고 학생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듣는다. 정해진 진도가 가장 중요하다. 질문은 시간을 늦추는 변수이고, 토론은 진도를 마친 뒤에나 가능한 사치이다.

질문이 사라진 교실에서 자란 아이들은 토론보다 침묵에 익숙하다. 설득과 이해보다 승부와 경쟁에 익숙해졌다. 학교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회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증폭시킨다. 민주주의는 투표장만이 아닌 교실에서 시작한다.

인간성은 교과서로만 길러지지 않는다. 공감은 대화할 때 자라고, 책임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우며, 배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끝까지 들어보는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이 아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문화이

다. 그런 문화는 설명보다 대화에서, 경쟁보다 협력에서 꽃핀다. 국가 경쟁력도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문명과 혁신도 언제나 한 사람의 질문에서 출발했다.

교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교실의 방향을 칠판이 아니라 학생에게 돌려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다. 지금은 공개수업을 하거나 마무리 활동을 할 때만 이러한 학습 형태를 보여주기 위주로 한다. 하지만 거꾸로 학생토론중심 구조가 항시적이고 전체 공유가 필요한 때는 일시적으로 교사 중심 방향이어야 한다. 수업은 토론이 일상화된 학습 구조와 체계가 필요하다. 핵심은 언제나 네다섯 명이 마주 앉아 토론할 수 있는 구조로 준비하여야 한다.

교사의 자리는 교실의 중심이 아니라 배움을 연결하는 자리여야 한다. 학생들은 설명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수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사고할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평가의 기준도 바꾸어야 한다. 정답을 얼마나 맞혔는가보다 어떤 질문을 만들었는지, 어떤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존중하며 토론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교사에게 수업을 연구할 시간을 돌려주어야 한다. 질문 중심 수업은 훨씬 많은 준비와 성찰을 요구한다. 교육개혁은 교사의 희생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로 이루어진다.

교실 풍경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은 바뀌지 않는다. 교육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뀌지 않는다. 학생이 교사를 바라보는 교실에서 벗어나 서로를 바라보는 교실. 정답을 외우는 교실이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교실. 결국 ‘질문과 토론’ 교육 방식은 ‘인간다움의 회복’을 위한 길이다. 이 길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바뀌어야 한다.



김홍제
◇ 충청남도교육청청진로융합교육원장

오피니언리더스

강현순 수어통역사, ‘아름다운 동행’

수어로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며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행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들리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으며, 이들에게 수어는 또 하나의 소중한 언어이자 삶의 창이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현순 수어통역사는 오랜 세월 수어통역과 교육활동을 통해 농인(Deaf)과 일반인 사이의 소통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 인권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강 통역사는 2007년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수어통역 분야에 헌신해 왔으며, 2009년부터 KBS 부산방송총국 뉴스 수어통역사로 활동하면서 각종 재난·안전정보와 주요 뉴스를 농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산농아인협회 수어통역사 양성과정 강사, 부산예술대학교 수어 강사, 평생학습관 및 시민대학 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수어 교육의 저변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펼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포용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강현순 통역사는 수어통역사로서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따뜻한 봉사와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각종 복지기관과 공공행사,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에서 재능기부 형식의 수어통

역 봉사를 이어오며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왔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달려가 소통의 다리를 놓는 그의 모습은 지역사회에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다.

현재 UNPEC 사회적협동조합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권익 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제언, 국제 교류 협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26년부터 화신사이버대학교 비교과프로그램 수어 강사로 활동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수어 교육과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수어는 단순한 손동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용어이자 농인의 언어이며 문화”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헌신적인 활동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2024년 기장군민대학 우수 강사로 선정됐으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2025년에는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문성과 봉사 정신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보 접근권이 곧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시대에 수어통역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재난 상황과 공공정보 전달 과정에서 수어통역은 농인의 생명

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강현순 수어통역사는 오늘도 방송 현장과 교육 현장, 그리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수어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언어는 단순한 통역을 넘어 이해와 배려,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다.

소통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을 가장 따뜻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강현순 수어통역사다. 수어를 통해 세상과 사람을 잇고, 봉사와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밝히는 그의 아름다운 동행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의 미래를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 강현순
- ◇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실천 박사 수료
 - ◇ KBS부산방송총국 뉴스 수어통역
 - ◇ 부산지역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토론회 수어통역
 - ◇ 부산지방법원 위촉 수어통역사
 - ◇ UNPEC 사회적협동조합 자문위원
 - ◇ 화신사이버대학교 비교과프로그램 수어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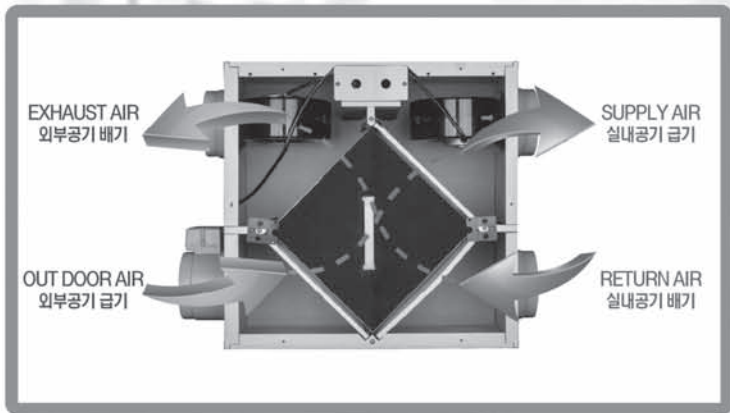
(사) 한국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협회 회원사

HW SYSTEM

◆ 환기장치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저희 한원시스템은 다수의 학교와 관공서,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끝!



전열교환기(환기장치)

필터교체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세요!

환기장치유지/관리 이제 전문기업에 맡기세요!

문의전화 : 1577-2036



인터뷰 차성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소통과 협치로 구민이 행복한 연제구 만들겠다”

차성민 의장,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 확대·화재와 재난 대비 안전한 도시 조성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차성민 의장이 제10대 연제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며 새로운 의정 비전을 제시했다.

차 의장은 구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복지,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실천 의정을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 확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교육연합신문은 차성민 의장을 만나 의정 운영 방향과 연제구의 미래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 제10대 연제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소감과 각오는?

“먼저 저를 믿고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 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정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

“현장 중심 의정이다.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실천형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 현재 연제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교육 발전을 위해 연제구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원은 물론 평생학습 환경 조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 복지 정책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와 경로당 활성화,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연제구를 만들겠다.”

■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재난 대응 정책은?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 노인·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화재예방 대책은?

“재난취약계층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화재감지기 보급 확대와 안전교육, 정기적인 대피훈련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을 강화하겠다.”

■ 화재 시 유독가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소공급형 생명구조 마스크 보급에 대한 견해는?

“화재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길보다 유독가스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은 대피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재난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산소공급형 생명구조 마스크를 비치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이라면 의회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 경로당과 복지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은?

“노후시설 개선과 정기 안전점검, 소방훈련 확대, 응급장비 확충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과 소비 촉진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연제구의회는 구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권한과 책임 위에 존재한다. 저는 의장으로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겠다. 화려한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시길 행정보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보답하겠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청년들이 희망을 찾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연제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 특히,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

앞으로도 연제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건겠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든든한 이웃처럼,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 구민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연제구, 더 행복한 연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황요규 기자 hog@

강무길 의장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로”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출범… 7개 상임위 구성 본격 의정활동 체제 구축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가 공식 출범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 6일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강무길 의원을 선출한 데 이어 개원식을 개최하며 향후 4년간 부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는 민선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 속에서 출범했다.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도시균형발전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의회에 기대하고 있다.

신임 강무길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장은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협력의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강무길 의장

균형을 강조하며 정책 중심 의회, 대안 제시형 의회,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현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의회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주도 성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기에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북극항로 개척,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대형 현안에 대해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의정단 선출에 이어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 체제 구축에 나섰다.

시민들은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숙한 지방의회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은 7월 7일 총렬사를 참배하며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할 예정이다.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주목된다.

황요규 기자 hog@

부산남구의회, ‘여야 합의’로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의장에 국민의힘 고선화 의원·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허미향 의원 선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여야 의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며 상생과 협치의 의회를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는 지난 7월 6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구성은 국민의힘 7석, 더불어민주당 6석으로 구성된 팽팽한 의석 구조 속에서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자칫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예상됐지만, 여야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성숙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제10대 전반기 의장에는 국민의힘 고선화 의원(용호1·2·3·4동, 3

선)이 선출됐으며,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허미향 의원(용당동·감만1·2동·우암동, 3선)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이종현 의원(국민의힘·재선), ▲기획행정위원장 윤성록 의원(국민의힘·초선),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이병준 의원(더불어민주당·재선)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초선), ▲윤리특별위원장에 노택균 의원(국민의힘·초선)이 선출돼 전반기 의회 운영의 균형과 전문성을 높게 됐다.

특히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의장직을 맡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직을 맡는 등 의석수에 비례한 합리적 배분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남구의회는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구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선화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제10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과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원구성을 이뤄낸 만큼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남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뢰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는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계기로 민생 중심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하며,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황요규 기자 hog@

A.T PROGRAM

(AI + Touch My Dream)

"내 아이를 위한 아주 특별한 검사"

M.I.T

마음지능검사
(Mind Intelligence Test)

- 100가지유형 기질검사
- 강점지능검사
- 자기주도학습태도검사
- 성품검사

M.E.T

마음에너지검사
(Mind Energy Test)

- 유전자지문적성검사
- 학업스트레스검사

With You Program

함께라면
(With You Program)

- 진로프로그램
- 소통프로그램
- 마음알아주기 프로그램

행복한 가치를
창조하는 교육기업

적성과미래

상담문의 1544-3105

홈페이지 www.kgatest.com

고양 가좌초, 中항저우 초등학생과 국제교류

정재은 교장 “세계를 이해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경기도 고양 가좌초등학교(교장 정재은)는 지난 7월 8일 중국 항저우 빈장 제1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방문단 6명을 초청해 청소년 문화 교류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 학생들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국제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학교 도서관을 둘러본 뒤 가좌초 전교학생회 임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가좌초 학생들은 환영의 의미를 담아 직접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방문단을 맞이했다. 이어 학교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설명회와 양국 학생들의 공연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가좌초의 첨단 교육



시설도 소개됐다. 방문단은 VR 체험을 찾아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체육활동을 하는 모습을 참관했다.

중국 학생들은 VR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형 교육환경을 경험했다. 이어 체육관과 영어실

들을 둘러보며 학교 교육시설과 수업 운영 모습을 살펴봤다. 방문단은 학교 급식도 함께 체험했다. 학생들은 위생적인 급식 환경과 균형 잡힌 식단을 경험하며 한국의 학교 급식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빈장 제1초등학교 6학년 가오쯔한(Gao Zihan) 학생은 “가좌초 친구들이 따뜻하게 맞아줘 긴장이 금세 풀렸다”며, “VR 기술을 활용한 체육 수업이 매우 인상 깊었고 한국 학교 급식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가좌초 전교학생회장 김아린 학생은 “중국 친구들을 직접 만난 경험이 매우 뜻깊었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정재은 교장은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모습이 매우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원 생명지킴이 역할 강화

‘마음이음 365 교사용 학생 마음건강 위기 대응 자료’ 배포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7월 10일 ‘마음 지킴이 날’을 맞아 학생 마음건강 위기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026 북부 마음이음 365 교사용 학생 마음건강 위기 발굴·대응 자료’를 개발해 관내 초·중·고·각종 특수학교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원의 학생 마음건강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에는 △학생 마음건강 위기 신호와 자살 위험 징후 체크리스트

△△위기 징후 발견 시 단계별 대응 절차 △학생 상황별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등 모든 교원이 학생의 작은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북부 마음이음 365 마음건강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해 학생 마음건강 검사를 기반으로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예방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기존 사업을 확대해 모든 교원이 학생의 일상적인 변화

를 세심하게 살피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자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마음 지킴이 날’ 운영과 연계해 학교 현장의 정기적인 마음돌봄 활동을 지원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 중심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자료 배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위기 예방과 학생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식 교육장은 “학생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학교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또한, 대회에 앞서 다양한 CU 도시락 샘플 전시를 운영해 학생들이 최신 상품 트렌드와 소비자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작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감 있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체결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와 BGF리테일의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첫 번째 교육 프로젝트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며, 학교에서 배운 조리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실무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가졌다.

손민호 교장은 “직업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제공할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번 창작요리경영대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산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한국조리과학고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생들이 개발한 메뉴가 실제 CU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경험은 교실 수업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값진 배움이자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실무 중심의 직업특성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조리과학고는 앞으로도 산업체와의 긴밀한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식품·외식산업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상민 기자 ss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티에프메디칼 (주) 점주님만의 혜택

- 높은 마진율
- 노후대비
- 확 줄어든 재고부담
- 홍보및 행정지원

관심 있으신 미래 점주님들은 아래로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생명을 살리는 시간 단 4분



BIOTA-3 수동식 심폐소생기

전라남도 213개 (초·중·고) 학교 시범 설치



COMPANY : 티에프메디칼(주)
대표번호 : 1899-0971
Tel : 031)941-0970
Fax : 031)949-8445
ADDRES :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39(우. 10882)
E-MAIL : tfmedical@naver.com

Q 당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A 수동식 심폐소생기(Biota-3)는 전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민석 교육감 “장애학생 진로 함께 책임져야”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박람회’ 참석 장애·비장애 학생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강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7월 10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원장 서명규)이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에서 개최한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박람회’에 참석해 장애학생의 졸업 후 진로 지원 확대와 특성화고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장애 아이들과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 진로와 직업”이라며 “이런 사회적 고민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처음과 끝은 어른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 중심,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장애학생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를 평택시에 설립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서로의 벽을 허물며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경기도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를 여는 선택, 함께 만드는 진로'를 슬로건으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한경국립대학교가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했다. 박람회장에는 진로·직업 체험 부스를 비롯해 대학교 전공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진로·진학 정보제공과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오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7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수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와 연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학 상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학부모와 교사,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경기 성남여고, 그린스마트스쿨 개관

최첨단 교육시설로 AI중점학교 기반 다져

경기도 성남여자고등학교(교장 이인숙)는 지난 7월 2일 성남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에듀테크를 실현하는 미래형 학습 조성을 함께

축하하고 그간의 교육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관식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신상진 성남시장,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천지열 중원구청장 등 지역 주요 인사와 교사

및 학부모 대표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학교 새빛관 중정에는 쏟아지는 자연채광 속에서 생각숲스마트도서관, 스마트팜, 수직정원, 별빛기 정보검색대 등을 갖추었다. 넓은 광장형 공간에서 '2026 교육과정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하게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자칠판과 전자교탁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교실과 각 층의 가

변형 강의실 및 학생 휴게 공간도 마련됐다.

스마트체육관에는 VR스포츠기와 AI운동기구를 도입해 미래형 체육 수업의 기틀도 마련했다.

성남여고 이인숙 교장은 기념사에서 “새로운 배움의 공간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경험하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상민 기자 ssm@

고양교육지원청, 학생 갈등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

맞춤중재단 및 마음공유학교 성장나눔회… 성과 공유·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숙)은 7월 9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 고양 맞춤중재단 및 마음공유학교 성장나눔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관계회복 중심의 갈등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성장나눔회는 학교 내 학생 갈등의 교육적 해결 역량을 높이고, 고양 맞춤중재단 운영 성과와 마음공유학교의 화해중재 대화모임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했다.

또 '2026 경기형 관계회복 숙려제' 운영을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을 처벌 중심이 아닌 학생 간 관계 회복의 기회로 접근하는 교육적 문화를 학교에 정착시키는 데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고양 맞춤중재단 위원과 마음공유학교 교사를 비롯해 지역 내 교장, 교감, 교사, 교육지원청 직원 등 관계회복 교육에 관심 있는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화해



중재 대화모임을 지원하는 고양 맞춤중재단 위원 63명을 운영하고 있다.

또 '2026 고양 마음공유 준비학교' 8교와 실천학교 10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 대화모임을 활성화하며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날 프로그램은 '회복적 학교 문화 만들기' 연수를 시작으로 고양 맞춤중재단 운영 사례 발표와 마음공유 실천학교인 행신중학교의 화해중재단 운영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별 적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행사에서는 '경기형 관계회복 숙려제'도 소개했다.

이 제도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학교 내 대화모임이나 맞춤중재단이 참여하는 예비중재를 통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이를 통해 학교의 교육적 문제 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숙 교육장은 “학교 단위 화해중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계회복 중심의 생활교육을 확산하겠다”며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경기도민 77.3% “교내 스마트폰 수거·보관 필요”

경기교육청, ‘폰 프리 스쿨’ 여론조사 결과 공개… 제도적 일괄 규제 기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폰 프리 스쿨’ 정책 추진을 위해 실시한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7월 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교내 스마트폰 수거·보관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 제도적 일괄 규제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교내 스마트폰 수거·보관 조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7.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학부모는 84.0%, 기혼자는 83.7%가 필요성에 공감해 자녀를 둔 가정에서 정책 지지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기존 학교 자율에 맡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52.5%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규제 방식으로는 ‘제도적 차원의 일괄 규제’를 선호한다는 응답

이 67.7%로 집계됐다. ‘학교별 자율 운영’을 선택한 응답은 24.8%였다.

특히 학부모 73.7%, 기혼자 72.8%, 자녀가 있는 응답자 73.7%가 일괄 규제를 선호해 학교마다 다른 운영 방식보다 일관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폰 프리 스쿨’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2%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학부모는 72.6%, 기혼자는 77.4%, 60세 이상은 81.0%가 효과를 기대했다.

정책의 기대 효과로는 ‘원활한 수업 진행과 교권 보호’가 2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업 집중도 향상’ 24.6%, ‘스마트폰 사용 습관 개선’ 18.9%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항으로는 ‘학생 반발과 규정 미준수’가 34.7%로 가장 높았다. ‘긴급 상황 시 연락 어려움’은 23.6%를 차지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자치 협의와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병행해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행 방식은 ‘등교 시 스마트폰을 제출하고 학교 시 돌려받는 방식’이 51.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적용 대상은 ‘초·중·고 전

체’가 33.1%로 가장 많았고, ‘초등 학교 전 학년’이 27.2%로 뒤를 이었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즉시 도입’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시범학교 운영 후 단계적 확대’ 29.5%, ‘충분한 사회적 합의 후 시행’ 21.1% 순이었다. 학부모의 경우 49.1%가 즉시 도입에 찬성했다.

‘폰 프리 스쿨’은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사용을 줄여 학생들이 배움과 관계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도교육청은 추진단 구성과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LAS(Literacy·Arts·Sports, 문해력·문화예술·스포츠) 교육과 연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이번 조사는 경기도민이 ‘폰 프리 스쿨’을 비롯한 교육 대전환 정책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간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력 회복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안전한 통학로 조성

신커봉사단, 안전 우산·폼트리 전달… 교통안전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은 7월 14일 서울정진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가족을 위한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을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은 남부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및 가족 지원 평생학습 사업의 하나로 운영된다. 행사에는 신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봉사단은 교육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제작한 안전 우산과 기부금을 모아 마련한 ‘폼트리’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폼트리는 보틀 안에 7가지 선물을 담아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캠페인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의 성장과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울교육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환용 교육장은 “남부교육지원청은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평생교육 특색사업을 교육지원청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PMZ

Pozzalan Mat Zone

평균 98.2%, 원적외선 방사율 90.4%의 친환경 매트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포졸란매트존입니다.

서귀포시
'치유의 숲' 조성

용인시
'여성길(Earthing)' 조성

의정부시
'맨발로(路)' 조성

▶ 4줄란 매트길의 특성

1. 원적외선 방사

세포조직을 활성화시켜
온열효과로 인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항균

포졸란 분말을 표면에
도포하여 불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준다.

3. 탈취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막
역할을 하여 기존제품 대비
부식속도가 느리다.

4. 친환경성

천연소재로서 자연환경과
이질감 없는 경관의 연출이
가능하고 수요가 높다.

UARU (주)유아르

강일도 원주시 호저면 교산동막길 108-36 T. 033-808-7013 www.uaru.co.kr



전국 최초 4선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아이들에게는 꿈을, 교사에게는 자긍심을,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민선 교육자치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부산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선택받은 의미를 “지난 9년간 부산교육이 걸어온 길에 대한 신뢰이자 미래교육 완성에 대한 기대”라고 평가했다.

그는 “4선이라는 결과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부산교육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책임과 명령”이라며,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의 4년은 오직 학생만 바라보며 부산교육의 미래 대전환을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부산 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취임 소감과 각오는 무엇인가?

“이번 선거를 통해 감사하게도 ‘사상 첫 4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감 재임 9년간 공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복지를 두텁고 탄탄하게 공명, 학교 혁신의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온 성과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자, ‘부산교육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도약시키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부산시민과 학부모님들은 낯은 이념 공세나 정치적 구호에 흔들리지 않고 검증된 경험과 정책의 안정성을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다져놓은 탄탄한 기반 위에 부산의 아이들이 다가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더 큰 열정과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민선 교육자치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부산교육의 미래 비전과 핵심 교육철학을 말씀해 달라.

“지난 9년간 쌓아온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을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표준으로 만들 것”

“AI·반도체·교육복지 혁신으로 미래교육 대전환”

로 앞으로의 4년은 화합과 소통 위에서 오직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며 부산교육의 미래 대전환을 완성해 나가겠다. 저는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도 기술보다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을 부산교육의 핵심 철학으로 삼고 있다.

가정환경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것이 부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AI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도, 교육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 이를 통해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4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대표 교육정책은 세 가지는 무엇인가?

“앞으로의 4년은 부산교육이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형 교육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이 그것이다.

기존 성과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그 위에 ‘부산형 공교육 찬스’라는 새로운 동력을 더하겠다.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도약으로,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공교육의 힘으로 부산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

■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부산형 미

래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은 말 그대로 AI 대전환의 시대다. 부산교육도 이에 맞게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AI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우리가 AI를 알고 활용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저는 AI 교육의 핵심은 기술 도입 못지않게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AI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보편한 것은 ‘AI는 도구일 뿐,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교육적 판단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AI와 교사가 함께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AI는 학생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의 동기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AI를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동시에 디지털 리더십과 윤리 교육을 강화해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독서·토론·예술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키우겠다. AI가 아무리 뛰어난 답을 내놓더라도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는 힘은 결국 인문학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AI 활용 역량뿐 아니라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AI 중점학교, AI융합교육 중심학교를 통해 AI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부산 어디서든 AI 신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

도록 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를 확충하겠다.”

■ 학력 신장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AI 시대일수록 기본이 더 중요하다. 스스로 공부하는 힘, 즉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핵심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심 자기주도 학습지원을 올리는 중학교까지 확대했다. 운영 초기여서 학교와 선생님들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문해력과 수리력이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지적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AI가 답을 줘도 이해하지 못하면 학습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서울교육청과 함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교과별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정보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 자료도 제작해 지원하겠다. 올해부터는 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여 학년이 달라져도 학생들의 진단 결과와 보정 학습 이력을 밀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가?

“교권과 학생 인권은 둘 다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무엇보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다. 먼저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확대했다. 소송의 경우 심급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고, 피해교원 치료비뿐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학교의 민원 책임자인 학교장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많이 진행했다. 앞으로는 교육지원청마다 학교 민원 대응을 담당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구성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선생님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학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직접 대응하도록 하겠다. 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더라

도 교사가 고의적으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는 학생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동안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학교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생활협약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는 생활협약과 생활교육이 모범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안내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되는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교육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사소하고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온 결실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갈등을 치유하는 ‘관계회복속려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운영 성과를 보면서 고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

학생 정서 지원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대가족이나 고향길 또래들과의 놀이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웠다면 지금은 그러한 기회나 공간이 사라졌다. 또, 즉각적인 온라인 소통에 익숙해 실제 대면 상황에서 감정조절에 서툰 아이들을 위해 유니세프와 손잡고 사회정서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겠다. 더불어 초·중·고교 중 145개 학교를 ‘마음챙김학교’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자기 감정 이해와 조절 역량을 키우고 있다. 학교폭력은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이들의 관계와 마음을 함께 회복시켜야겠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와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저는 이를 부산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은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원도심과 소규모학교는 단순히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특색 있는 학교’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무엇보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소규모 학교 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교무행정 전담팀도 구성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규모의 차이가 단점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AI 교육환경 및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부산의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폐교의 속도도 늦추고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하겠다.”

■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새롭게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저는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졸업앨범비와 중학교 교복·체육복 지원, 1형 당뇨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해 왔다. 앞으로는 수학여행비 및 현장 체험학습비도 국내 여행을 기준으로 필요한 실경비를 지원하겠다. 자녀 수는 줄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노력과 비용은 더 커지는 현실을 감안해 부모님의 마음으로 더 촘촘하고 따뜻하게 챙겨, 아이 키우는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육격차 해소다. 부산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과 서부산권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 또,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모든 학생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는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학교별 특성과 교육을 더욱 강화해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어 가겠다.”

■ 부산형 놀봄학교와 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전 정부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놀봄교실로 바꾸면서 한때 현상이 많이 혼란스러웠다. 특히, 부산은 전일 교육감 시절 다른 교육청보다 무리하게 놀봄 정책을 추진하다 혼란이 컸는데, 지난 1년 동안 혼선을 정리하고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교육청은 기존 ‘놀봄학교’를 ‘초등 방과후·돌봄’ 체계로 개편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 돌봄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 안이나 집 가까

운 곳에서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것이 부산형 돌봄 모델인 ‘우리동네자람터’다. 지난 재임 기간 마을에 있는 복지관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해 ‘우리동네자람터’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16곳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생활권 중심 돌봄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향상에도 더 힘쓰겠다. AI를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확대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원도 강화하겠다.”

■ 부산전자공고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전환은 부산교육의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번 부산전자공고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은 부산 직업교육이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재선거 당시 약속드렸던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그동안 부산교육청은 부산시, 지역대학, 산업체와 머리를 맞대고 전환 TF를 운영하며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과 산학협력 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이번 교육부 지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부산전자공고에는 전국 고등학교 최초로 반도체 前공정과 後공정 교육이 모두 가능한 ‘반도체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첨단 실습환경을 갖췄다.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첨단 실습환경에서 현장 맞춤형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독보적인 교육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것을 넘어, 부산의 특성과 교육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최고 수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통해 부산이 미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단순히 학교 한 곳이 바뀌는 것을 넘어 부산이 ‘인재 유출 도시’에서 ‘첨단 인재 공급 거점’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래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재를 부산에서 직접 양성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부산의 우수한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부산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배우고, 지역 내 우수 기업으로의 취업은 물론,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부산교육청은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기업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지역대학과 연계한 후학습 체계까지 구축해 학생들이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

오는 2028년 개교를 차질 없이 준비해 (가칭)



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를 부산과 동남권을 아우르는 반도체 핵심 기술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를 계기로 ‘우수 인재 양성→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부산이 명실상부한 미래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경남공업고의 조선·해양플랜트 특성화고 육성 사업은 부산의 주력산업과 어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가?

“경남공업고의 조선·해양플랜트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은 부산의 주력산업과 직업교육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부산의 대표 전략산업인 만큼, 학교와 기업, 대학, 지자체가 함께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은 이러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부산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가겠다.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키우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교육청도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직업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금샘고의 전력반도체 특성화고 지정이 부산 반도체 산업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는가?

“금샘고의 전력반도체 특성화고 지정 역시 앞서 말씀드린 부산전자공고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이나, 경남공고의 조선·해양플랜트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과 마찬가지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부산이 미래 전력반도체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전력반도체는 미래 모빌리티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술인 만큼,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은 직업교육과 지역 전략산업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반도체 전문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고, 학생들이 부산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가겠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부산이 대한민국 전력반도체 산업과 첨단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부산전자공고·경남공고·금샘고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부산형 첨단산업 인재양성 벨트’의 청사진을 설명해 달라.

“부산형 첨단산업 인재양성 벨트는 학교별 특성을 살려 부산의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부산전자공고는 반도체, 경남공고는 조선·해양플랜트, 금샘고는 전력반도체 분야를 맡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인재를 키우는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교를 각각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양성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이 세 학교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벨트를 완성해 학생들이 부산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지역 산업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부산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거점으로 우뚝 서게 하겠다.”

■ 부산교육의 미래는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교육감님께서 꿈꾸는 2030 부산교육의 모습은 무엇인가?

“제가 꿈꾸는 2030년의 부산은 ‘가장 선진적인 미래 교육을 받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글로벌 인재들이 자라나는 도시’다. 2030년 부산의 교실은 첨단 AI와 디지털 기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속도와 재능에 맞춘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완벽히 정착되어 있을 것이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역량을 기르는 학교로 거듭날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자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부산의 탄탄한 전략산업 생태계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부산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부산의 학생·학부모·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겠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교육을 잘 이끌어 가겠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꼭 만들어 내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이들에게 꿈을, 교육가족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황요규 기자 hog@



대전교육청,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 개최

4개 교육청·독립기념관 공동 주최... 고교 역사동아리 학생·교사 등 180여 명 참여

대전시교육청은 7월 10일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에서 충청권 4개 교육청(대전, 세종, 충남, 충북) 및 독립기념관 공동 주최로 '2026년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은 지난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온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 개회식에는 지난 7월 1일 취임한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교육감이 함께 참석하여 미래 세



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직접 격려하고, 충청권 교육 공동체의 상생과 협력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한마당에는 대전 지역을

포함한 충청권 고등학교 역사동아리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 18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지난 1학기 동안 독립기념관 학예사의 학교 방문

협동 수업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 온 독립운동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과 학교의 경계를 넘어 공동 과제를 해결하며 충청권 역사동아리 간 연대감을 높이는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독립기념관에서 충청권 4개 교육청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청권 교육청 간 연대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역사와 보훈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특별한 응원! 최고의 순간

대전교육청, 사제 멘토링 '희망교실' 야구 경기 관람 프로그램 운영

대전시교육청은 7월 9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사제 멘토링 프로그램인 '희망교실'에 참여 중인 중학생 멘티와 교사 멘토 총 50팀 400명이 함께한 '스승과 제자의 특별한 응원! 최고의 순간' 야구 경기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프로야구 경기 관람을 통한 스포츠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제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선생님과 함께 야구장을 찾아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소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라며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또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응원하고 소통하는 경험은 단순한 문화체험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소중한 교육의 시

간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제가 함께하는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대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사전심사

교과서 배부·통학 지원 등 13건 대상 16일까지 온라인 국민심사

대전시교육청은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는 2026년 상반기 접수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13건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참여 누리집 소문24 내 정책참여 국민심사 메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3건을 선택하여 투표하면 된다.

사전심사 대상 사례는 1. 교원

성과금 평가제도 개선으로 화합과 배려의 교육 문화를 조성하다, 2. 대전 최초, 특수교육 방과후활동비 종이신청 없이 카드로 해결하다, 3.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첫 진로체험 프로그램 전격 가동으로 신설 기관의 한계를 넘어 12,800명 대전 학생에게 꿈을 배달하다, 4. 행정업무를 비우고 통학시간을 줄이고 학생안전을 더하여 현장 맞춤형 통학차량 지원 실현, 5. 새학기 42만 권 교과서 분류와 배부는 학교지원센터가 책임집니다,

6. 학교 시설관리 이제는 알려주고 도와줍시다, 7. 학교 산업안전에 디지털을 더하고 참여를 넓히다, 8. 명확한 경계 확정으로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마을 속 수련체험관으로 거듭나다, 9. 빌려주던 수영장에서 가르치는 수영장으로 수영장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다, 10. 반복되는 학교별 급여와 회계업무 교육청이 통합 추진, 11. 학교 통폐합으로 농철 유아 학습권 단일유치원 분원 설립으로 지켜내다, 12. 사례로 배우는 정렬한

사립유치원 조성, 13. 중북은 로그아웃 효율은 로그인 하여 연수운영 혁신, 통합으로 답하다, 총 13건이다.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이번 사전심사와 적극행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적극행정의 완성은 국민의 공감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온라인 사전심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한 표가 대전교육의 혁신과 적극행정을 이끄는 든든한 불씨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동·서부 초·중학교 269팀 3316명 참가, 학교체육 활성화의 장 마련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6학년도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7월 11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

는 학생 안전을 위해 혹서기 기간을 피해 5월에 개최된 축구 종목 을 제외하고 넷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킨볼, 피구 6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며, 해당 기간에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직접 대회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전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269팀, 총 3,313명으로 동부 1,243명, 서부 2,073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그동안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게 된다. 각 종목 4강 입상팀은 오는 9월에 개최될 대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권을 얻게 된

다. 또한 교육감배 대회 1위 팀은 11월에 개최 예정인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서 대전 대표로서 출전권을 얻게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조성만 교육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를 기르는 것은 물론, 배려와 존중, 협동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교육의 장이다"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역사 인문학으로 길을 찾다

산성어린이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선정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부설 산성어린이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포럼진흥원과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전 관내 초

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기 총 12회차 과정으로 운영되며, 역사 인문학 관점에서 우리 삶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저자 강연과 시대별 역사기행으로 구성된다.

저자 강연은 '심 대를 위한 역사

인문학'의 이고은 작가, '한국사 속 별별 사이'의 유정호 작가, '역사 컬렉터, 탐정이 되다'의 박건호 작가가 참여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역사 인문학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시대별 역사 기행을 통해 공주와 대전 등 우리 지역의 역사현장을 탐방하고, 사전 강의와 후속 활동을 함께 운영해 인문학 사유 경험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현호 기자 whh@

PA·AV 산업의 뉴리더 (주)케빅은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약속드립니다.

학교방송시스템 우수제품기업 주식회사 케빅

장영실상 수상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등록

우수디자인 선정

우수발명품

GS인증 1등급

G-PASS 인증

[부안 교육문화회관]

[전남 예술고등학교]

[신남 중·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서석홀]

[철원 고등학교]

[서울 매봉초등학교]

KEVIC
Professional Audio

주식회사 케빅
www.kevic.com

본사 : 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105, 1동 606호 (민락동, 의정부 더리브 센텀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서울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공장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곡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제품문의 1661-2669

김석준 부산교육감, ‘부산 미래교육 완성’ 본격 시동

취임 기자회견 갖고 5대 핵심 정책 방향 발표… 미래·맞춤·안심·시민·행복 교육으로 미래교육 대전환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7월 8일 오전 11시 부산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0대 부산광역시교육감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할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이 제시한 5대 정책 방향은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4년은 지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화합과 소통의 토대 위에서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부산의 미래교육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아이들이 저마다 가진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탄탄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교육청은 먼저 ‘AI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데 행정

력을 집중한다.

학교 현장에 적합한 AI 튜터를 전 학년에 보급하여 개인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학습을 지원하고, 남부와 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를 ‘AI·메이커교육체험센터’로 개편해 AI와 메이커 활동을 연계한 융합교육을 확대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학생과 교사가 AI를 안전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독서와 예술교육에도 집중한다. 독서토론 캠프를 실시하고, 악기공유센터를 설립해 학교 오케스트라 확산과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또, 폐교를 활용한 전국 최초의 오페라 아카데미를 설립해 문화예술교육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수업과 평가의 패러다임도 바꾼다. AI교수학습지원센터와 AI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과정 중심 평가 현장에 안



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도 강화한다. 문해력·수리력 책임 지도와 기초학력 밀착 관리로 배움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초·중·고 대상 학교급 전환기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고교생 수학·과학 심화학습을 통해 맞춤형 학력 신장을 지속 지원한다. 학생들의 심리적 근육도 키운

다. 모든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자기조절과 관계 형성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을 확대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다층적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진로·직업교육에도 힘을 쏟는다. 진로교육팀을 신설하고 권역별 고교학점제 박람회 열어 학

생과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를 다각도로 지원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취업 지원 플랫폼과 미래직업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사회 진출까지 교육청이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에도 주력한다. 일선 학교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악성 민

원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처리하는 민원대응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겪는 교사가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분쟁조정, 법률·심리·행정 지원 등 긴급 대응체계를 가다듬는다.

이와 함께 교무행정전담팀을 확대하고, 교직원 AI 비서와 업무 자동화 통합 앱을 보급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아울러 교직원의 심신을 돕는 교직원힐링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학부모들의 활발한 소통과 교육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학부모지원센터를 새로 개소해 맞춤형 교육과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문화적 포용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서부산권에 이중언어 및 국제교육 중심의 글로벌 미들스쿨을 설립하고,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에 걸맞게 해양과학과 산업을 체형하며 배우는 해양AI교육센터를 설립한다. 또, 전문적인 해양 체험과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도 완성해 나간다. 특수교

육대상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합학급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지원단 인력을 2030년까지 현재의 2.5배 수준으로 확충한다.

이주배경학생의 강점을 키우는 다문화 자율학교도 지정·운영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참여 활동비를 지급하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업 복귀를 돕는다. 교육

모든 아이를 위한 보편적 교육 복지도 한층 두텁게 한다. 전 학년 현장체험학습비를 완전 무상화하고,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을 지원하며, 부산형 유보통합 모델 완성을 교육의 공공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에는 진보나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저를 지지한 분이나 지지하지 않은 분 모두를 아우르며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에게는 꿈, 선생님들에게는 자긍심을, 학부모님에게는 믿음을 드리는 부산교육을 구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고 활짝 열어가겠다”며 부산 시민과 교육가족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정현 기자 ljh@

부산교육청, 학교 현장 교직원 업무 경감 대책 발표

AI·디지털 기술 기반 법정업무연수 확인 자동화·AI 챗봇 시스템 등 개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주요 교직원 업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교직원 업무경감 대책은 ▲교직원 법정업무연수 이수 확인 자동화 ▲부산시교육청의 지침·매뉴얼을 학습한 AI 챗봇 구

축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안문 샘플서식 제공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경감을 느낄 수 있는 대책이란 평가다. 교직원이 필수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업무연수 이수 확인 절차를 시스템화 해 완전 자동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이수증 출력·취합·보고 절차 등 부

수적인 업무를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또, 부산시교육청의 매뉴얼, 지침, 감사사례 등을 학습시킨 AI 챗봇 ‘챗BSSS’를 부산교육청 학교지원 통합포털사이트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를 통해 선보인다.

업무 관련 자료 검색 및 답변도 출을 지원해 업무의 효율성을 대

폭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안문 샘플서식 400여 종을 제공해 공문서 기안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한편, 교육청 업무 시스템인 K-에듀파인에 직접 탑재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의 본연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ljh@

부산SW마이스터고, AI·사이버보안 인재 육성

글로벌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아시아재단 협력 심화 과정 운영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 학교(교장 김성욱)는 7월 6일부터 13일까지 학교 등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Skills2Work 심화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글로벌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아시아재단과 협력해 미래 AI·사이버보안 분야를 이끌 핵심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글로벌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인증 자격(SC-900) 안내를 비롯해 AI 시대의 디지털 윤리, 데이터센터 아키텍처 이해 등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강의와 실습으로 운영됐다.

특히 학생들은 네트워크 패킷 캡처와 와이어샤크(Wireshark)를



활용한 취약점 진단,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반 클라우드 권한 관리, 문서형 악성코드 분석 및 디지털 포렌식 실습 등 사이버보안 전반에 걸친 실무 중심 교육에 참여했다.

또한 9일에는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의 운영과 보안’을 주제로 AI 활용 아이디어톤을 개최했다.

참가 학생들은 팀별로 데이터센터 과정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시아재단 관계자 등 현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침해사고 분석 실습과 소그룹 멘토링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글로벌 IT 기업의 업무 환경과 진로 정보를 직접 접하며 미래 설계 역량을 높였다.

이정현 기자 ljh@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 설명회

부산남부교육지원청, 고등학교 입학 대비 정보 제공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상돈)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상급학교 진학 및 체계적인 미래설계를 돕기 위해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등학교 전환기를 맞이하는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역량과 보호자의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설명회는 8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했으며, 성인기 전환을 위한 전공과, 대학 진학, 취업 방법 등 구체적인 진로 사례를 공유

하고, 유관기관 연계 및 복지 자원 활용법과 졸업 이후의 다양한 진로 경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보호자들이 자녀 특성에 맞는 진로 정보를 탐색하고 가정 내 자립 생활 지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가 맞춤형 진로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정현 기자 ljh@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지능형과학실 조성

설계부터 가구, 기자재 구축까지 ONE-STOP 솔루션 제안

미래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공간 설계와 스마트한 가구, 첨단 기자재를 하나로 연결하여 창의적이고 안전한 과학실을 완성합니다.

인테리어



가구



기자재



맞춤형 공간 설계
교육과정과 실험 특성에 최적화된
공간 구성 및 디자인



통합 솔루션 제공
인테리어, 가구, 기자재를
원스톱으로 구축



안전하고 스마트한 환경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스마트한 실험 환경 구현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안정적인 운영 지원



월드퍼니처 부산진구사업단



051.711.144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91, 서면 동양빌 1104호

전남 장애학생 e스포츠 페스티벌서 기량 겨뤄

함평영화학교, 9개 학교 88명 참가 디지털 스포츠 통해 협력·교류의 장 마련

함평영화학교(교장 김균)가 지난 7월 2일 함평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2026 전남 장애학생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 지역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역량을 높이고 학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남장애인e스포츠연맹과 전남과학대학교 e스포츠학과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 지역 9개 학교에서 학생 88명이 참가해 ▲리그 오브 레전드 ▲FC온라인 ▲닌텐도 스위치 테니스 ▲닌텐도 스위치 볼링 등 4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학생들은 경기 규칙을 지키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협력과 배려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학생들이 디지털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됐다. 또한 전남과학대학교 e스포츠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경기 운영과 심판을 지원하며 원활한 대회 진행을 도왔고, 참가 학생들은 e스포츠 관련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행사장에는 푸드트럭 간식존을 마련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시상 상품을 수여해 성취감을 높였다. 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경기를 하면서 정말 재미있었다"며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응원도

받아서 기뻛고, 다음에도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함평영화학교는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과 사회성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홍석범 기자 2580news@daum.net

나주고, '전력반도체와 미래에너지' 고시외 과목 승인

한국에너지공대와 협업 결실... 에너지·반도체 핵심인재 양성 본격화

전남광주 나주고등학교(교장 강대창)가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전력반도체와 미래에너지' 고시외 과목 승인을 받으며, 지역 미래산업을 이끌 에너지·반도체 분야 핵심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이번 승인은 지난 6월 26일 이뤄졌으며, 나주고등학교가 2024년 3월 1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해 온 에너지 특화 교육과정 운영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주고등학교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는 에너지·반도체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공공기관, 산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에 힘써 왔다. 특히, 나주고등학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와 긴밀히 협력해 고교 교원과 대학 전문연구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발 모델을 마련했다. 이 과목은 산업현장의 요구와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해 설계됐

으며, 과목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한국전력거래소, 전남대학교 등 에너지·반도체 분야 주요 기관과 교류하며 교원과 학생의 반도체 기초 소양을 쌓아왔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산업현장의 요구와 최신 기술 동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데 실질적인 밑거름이 됐다. 신설 과목은 2026학년도부터 본격 운영되며, 나주 관내 일반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력반도체의 동작 원리와 소재·공정, 미래

에너지 산업 동향 등 심화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장 실습, 프로젝트 수업, 멘토링, 국내외 산업 현장 견학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진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수업, 전력반도체 및 에너지 신산업 특강 등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과목 신설은 전남·광주권에 조성 중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

기반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나주고등학교는 이번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고교 단계부터 산업 현장과 대학 교육을 연결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앞으로 나주고등학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심화 교과목 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연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에너지·반도체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과의 상시적 산학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진로·진학 상담, 지역인재 추천제 등 실질적인 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나주고등학교 담당 교사는 "에너지와 반도체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인 동시에 학생들의 꿈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며, "고교-대학-산업체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혁신으로 나주고등학교가 지역 혁신성장의 한 축이자 전국적인 교육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2580news@daum.net



화순초, 온·오프라인 보훈 교육 실천

호주 시드니서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성료

화순초등학교(교장 조영래)는 지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호주 시드니 현지에서 '2026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국제교류 연계 게이미피케이션 보훈 융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먼저, 조영래 교장을 비롯한 교원 방문단은 방문 기간 중인 25일 시드니 무어파크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방문단은 주시드니총영사관, 시드니한인회, 시드니재향군인회 등 현지 관계자들과 만나 참전용

사의 희생을 기리고, 향후 글로벌 보훈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학생들이 참전용사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디자인한 한·호 연대 기념배지와 손편지가 시드니한인회에 기탁되어 진한 감동을 더했다. 미래 세대의 진심이 깃든 이 뜻깊은 헌정품은 오는 7월 거행되는 정전 기념행사를 통해 생존 참전용사분들께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다. 이어 화순초등학교와 호주 시드

니 한글학교(KCLS, 교강 루시아 최)가 공동 주관하여 '자유와 평화를 플레이하다'라는 주제로 한·호 연합 교류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주관 학교를 포함해 광양중동초등학교, 도초초등학교, 무안초등학교, 천태초등학교 등 온·오프라인으로 총 6개교에서 200명의 학생이 참여해 그 열기를 더했다. 수업에는 6·25 전쟁 당시 국군과 호주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다룬 스토리텔링 기반 체험형 콘텐츠 'Mateship: 남십자성의 기억'(https://jgl.kr/mateship)이 활용되었다. 호주 현지의 환경을 고려해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 없는 웹앱(Web-App) 방식으로 제작된 이 콘텐츠를 통해, 양국 학생들은 원

활하게 접속하여 소통하며 사후 활동을 진행했다. 아울러, 체험형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학생들에게는 한·호 연대 기념배지가 보상으로 제공되어 수업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지속적인 체험형 콘텐츠 기반 수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방문단은 현지에서 새로운 보훈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매진했다. 25일부터 28일까지 무어파크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배경으로 한 신규 체험형 콘텐츠 'Lest We Forget'(https://jgl.kr/moorepark)을 직접 개발했다. '혀리지는 기억을 다시 건다'라는 콘셉트의 이 콘텐츠는 GPS와 AR(증강현실) 기능을 활용해 점차 기억을 잃어가는 참전용사의 기억을 이어주는 스토리를 담고 있으며, 현지인과 재외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조영래 교장은 "에듀테크를 활용해 국경을 넘어 6·25전쟁의 역사와 참전용사의 헌신을 배우고 공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훈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평화를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식 기자 2580news@daum.net

삼계중 '청소년 폭력예방 또래상담 사진공모전' 대상

또래상담부 작품 '어린 날개' 방관 넘어서 용기와 회복의 메시지 담아

삼계중학교(교장 김미애) 또래상담부가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한 '2026년 청소년 폭력예방 또래상담 사진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결과 발표는 6월 26일 이루어졌으며, 우수학교에는 학교 방문을 통한 상장 수여가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교실에서 함께하는 또래상담자의 활동을 통해 또래상담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성 관내 초·중·고등학교 또래상담자를 포함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심사는 창의성(20점)·협동성(20점)·현장심사(60점)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장성군청 로비 및 아웃리치 현장 등에서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시민현장 투표를 반영했다.



삼계중학교 또래상담부의 수상작 '어린 날개'는 흑백 톤의 화면 속에서 수많은 방관자의 무관심 사이, 또래상담자가 피해 학생을 의면하지 않고 다가가 손을 잡아주는 용기 있는 순간을 포착한 작품이다. 또래상담부는 "피해 학생의 새로운 시작을 날아오르는 새의 날갯짓에 비유했다"며, 방관의 침묵을 깨고 손을 내미는 작은 용기가 곧 변화의 시작임을 전하고자 했

다고 밝혔다. 작품에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또래상담자가 웅크린 친구에게 손을 건네는 모습이 중심에 배치되고, 주변을 둘러싼 학우들의 시선이 대비되며 학교폭력 상황에서 '주변인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작품은 또래상담부 전체 학생들이 여러 차례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주제 선정부터 장면 구성, 촬영 연출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 주도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원들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방관자의 무관심'과 '한 사람의 용기'를 대비시키는 장면을 도출해냈다. 부원들은 작품에 담긴 메시지를

학교 안팎으로 확산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며, 학우들에게 방관하지 않는 용기와 서로에게 손 내미는 문화의 중요성을 알렸다. 김미애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아이디어를 모아 작품을 완성하고, 그 메시지를 캠페인으로 이어간 과정 자체가 살아 있는 교육"이라며 "삼계중학교는 앞으로도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꿈과 희망을 키우며 웃음꽃 피는 삼계중학교는 앞으로도 또래상담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충용 기자 2580news@daum.net

역사·평화 발자취 직접 걸으며 역사·평화 가치 되새겨

무안희망중, 목포 근대역사관·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등 우리 동네 탐방 실시



무안희망중학교(교장 신원호)는 지난 7월 3일 1학년 학생 전원과 인솔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6. 무안반도 공동연계 우리 동네 평화 발자취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적 명소를 직접 탐구하며 애乡심을 기르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소중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우리동네 한바퀴'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탐방에 앞서 7월 2일 다목적 체육관에서 사전 안전교육과 함께 영암고등학교 박성오 역사 교사를 초청해 목포의 근대 개항장 유적 및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며 내실을 기했다.

이날 학생들은 효율적인 관람을 위해 2개 팀으로 나누어 목포 일대의 역사·문화 공간을 입체적으로 탐방했다. 먼저 학생들은 일제 지배의 상징에서 지역 문화재로 거듭난 목포근대역사관 1관(옛 일본 영사관)을 찾아 당시 강제 동원의 아픔이 서린 방공호와 석조 별관 등을 둘러보았다. 이어서 식민지 수탈 기관이었던 2관(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을 방문해 착취의 역사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감금되었던 흔적을 살펴보았다. 또한 일제 강점기 긴자 거리의 유일한 조선인 상점이었던 '갑자옥 모자점(현 모자아트갤러리)'과 순수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옛 호남은행 목

포지점(현 목포대중음악의전당)'을 통해 조선 상인들의 금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목포 5월 민주 항쟁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옛 동아약국(안철 가옥)'과 독립운동 자금 마련과 연관된 '목포 화신 연쇄점'을 탐방하며 치방전 대신 민주주의를 조제했던 선배들의 숨결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관람하며 숭한 시련을 이겨낸 '인동초' 같은 삶과 행동하는 양심, 햇볕정책 등 평화 사상의 숭고한 의미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우리 동네 평화 발자취 워크북'을 활용해 미션을 해결하고 모둠별 인증샷을 남기는 등 자기주도적으로 탐구 활동에 참여했다. 탐방 이후에는 소감 나누기, 기행문 작성, 평화의 메시지 만들기 등 사후 활동을 통해 배움을 내면화할 예정이다. 신원호 교장은 "교실을 벗어나 우리 지역의 역사와 평화의 발자취를 직접 걷고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상 속에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양림 기자 2580news@daum.net

“우주에서 블루베리를 먹는다면?”

전남 고흥동초, 1학년 우주항공 특색 체험활동

전남 고흥동초등학교(교장 김경목)는 지난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1학년 학생 4개 학급 78명을 대상으로 우주항공 연구학교 특색 체험활동인 '블루베리 타르트 만들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고흥동초등학교가 운영 중인 '우주항공 연구학교' 교육과정과 융합해 기획됐다. 1학년 학생들은 '무엇을 먹고 지낼까?'라는 주제 아래, 고흥의 대표 특산물인 블루베리가 우주 공간에서 어

떤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을지 상상해보고 미래의 '우주 식량' 개념을 탐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고흥에서 자란 신선한 블루베리를 직접 만지고 맛보며 타르트를 완성하는 오감 만족 요리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창의적 표현력을 키웠다. 또한, 푸드 사이언티스트나 우주 식량 연구원과 같은 미래 식생활 분야의 이색 직업군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체험에 참여한 1학년 박○○ 학생은 "멀리 있는 우주에 우리가 만든 블루베리 타르트가 우주 식량으로 배달되면 좋겠다. 우주비행사들이 이걸 먹고 맛있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설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목 교장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특산물을 활용해 아이들이 과학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 중심지인 고흥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융합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우주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철 기자 2580news@daum.net

전북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안착 총력

11개 유관기관 참여 등 지역사회 협력 확대... 복합위기학생 지원 적극 노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촘촘한 학생 지원 체계인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올 상반기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부서 내부 협의체를 구성해 학업, 심리·정서, 안전·건강, 복지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했다.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



하며 복합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 밀착형 연수와 컨설

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124개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지원단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례 공유 및 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교육청은 하반기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매뉴얼 제작·보급과 성과보고회를 통해 정책 방향과 현장 중심 실무 운영 내용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전호성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연수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지속 확대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학원 지도·점검 결과 공개

“행정 투명성·교육 소비자 정보 접근성 높일 것”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전호성)은 그동안 내부 자료로만 관리해 온 학원 지도·점검 결과를 도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원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교육 소비자의 정보 접

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개선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민 누구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자료는 전북교육청 누리집 창의

인재교육과 부서 자료실에 2026년 2분기 점검 결과부터 게시돼 있으며, 향후 분기별 1회 정기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내용은 △분기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점검 실적 △행정처분 현황 △주요 위반 유형별 예방 안내 등 통계 및 유형 등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처분 확정 전 피처분자의 권익 보호 원칙에 따라 개별 학원의 명칭, 대표자, 주소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원 지도·점검 결과를 도민과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원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 학부모와 학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호성 전북교육감 “매 순간 전북 빛내준 것 감사”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및 유공학교 포상격려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전호성)은 9일 오후 5시 전주N타워 컨벤션웨딩홀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및 유공학교 포상격려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5월 23~26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뽐낸 선수와 지도자, 학교장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은 38개 종목에 808명이 참가해 금 7개, 은 24개, 동 36개 등 총 6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단체 구기 종목에서는 전주군영중학교 배구와 전주남중학교 농구가 은메달을, 핸드볼에서 이리송학초등학교와 정읍서초등학교가 3위를 차지했다. 또 하키 종목에서는 김제중학교가, 축구 종목에서는 전북체육중학교가 각각 3위를 기록했다.

개인·단체 종목 톨러에서는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15세 이하 개인과 단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와 12세 이하 개인 은 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밖에 검도 15세 이하, 소프트 테니스 12세·15세 이하 2위, 펜싱 12세 이하 단체 3위, 15세 이하 개인 2위, 단체 3위, 배드민턴 남 12세·15세 이하 각 3위의 성과를 거뒀다.

개인 종목에서는 수영, 유도, 체조, 태권도, 볼러, 스쿼시 등에서 총 6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전북교육청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학교에는 최대 1,500만원,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는 최대 600만원, 메달 획득 학생 선수에게는 50만~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

했다.

전호성 교육감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우리 전북의 명예를 빛내준 선수 여러분과 뒤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운동부지도자, 감독교사, 교강선생님,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메달 색깔이나 승패를 떠나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의 도전 정신이야말로 가장 값진 메달이다. 앞으로도 우리 체육 꿈나무들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직업계고 학생 취업있는 ‘기업탐방 페스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 3차례에 걸쳐 ‘2026년 전북 직업계고 취업연계 기업탐방 페스타’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교용복지플러스센터, 원광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함께 참여한다.

각 기관은 기업 섭외와 취업 지원, 참여자 사후관리 등 분야별 역

할을 분담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이번 페스타는 기존 취업박람회와 학생과 기업이 하루 동안 만나고 끝난 뒤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탐방부터 면접 준비, 채용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밀착 지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업 발굴 △실선 면접 교육 △기업탐방 △취업 토크콘서트 △동행 면접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등 6단계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무와 근무 환경을 이해하고, 구직서류 작성·면접 준비·채용 연계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 첫 프로그램은 9일 미래모빌리티 분야 기업탐방으로 시작한다. 대림씨앤씨(주), ㈜오디텍, 한국자체(주) 등이 참여하며, 학생들은 자동차·기계, 반도체 분야 생산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페스타는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9월에는 농생명·식품 분야, 10월에는 관광·문화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다양한 산업의 채용 수요와 학생들의 취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도내 직업계고 취업희망자 200명으로, 7월에는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8개교 43명이 참여한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페스타는 단순한 기업 견학을 넘어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 채용 연계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교육청과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고,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하반기 스마트폰 심표학교 본격 추진

전북교육청,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로드맵 마련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전호성)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디지털 기기와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 ‘스마트폰 심표학교’ 4개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중 스마트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됐고,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했으나 사용에 대한 학칙과 지도체계

가 학교마다 달라 도 단위 통합적인 기준 및 지침 마련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스마트폰 심표학교’는 스마트폰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잠시 멈춤’을 통해 배움과 관계에 더 집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3대 운영 전략으로는 △법과 자율에 기반한 합리적 사용기준 정립(제도) △디지털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대제·성장 경험 제공(전환)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거버넌스 구축(동행)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가 참고할 수 있는 학칙 개정 예시안을 개발·보급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합리적 사용기준을 학교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대신할 오프라

인 대체 프로그램과 디지털시민성 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이 놀이·독서·관계 맺기 등 다양한 실제 경험 속에서 성장하고,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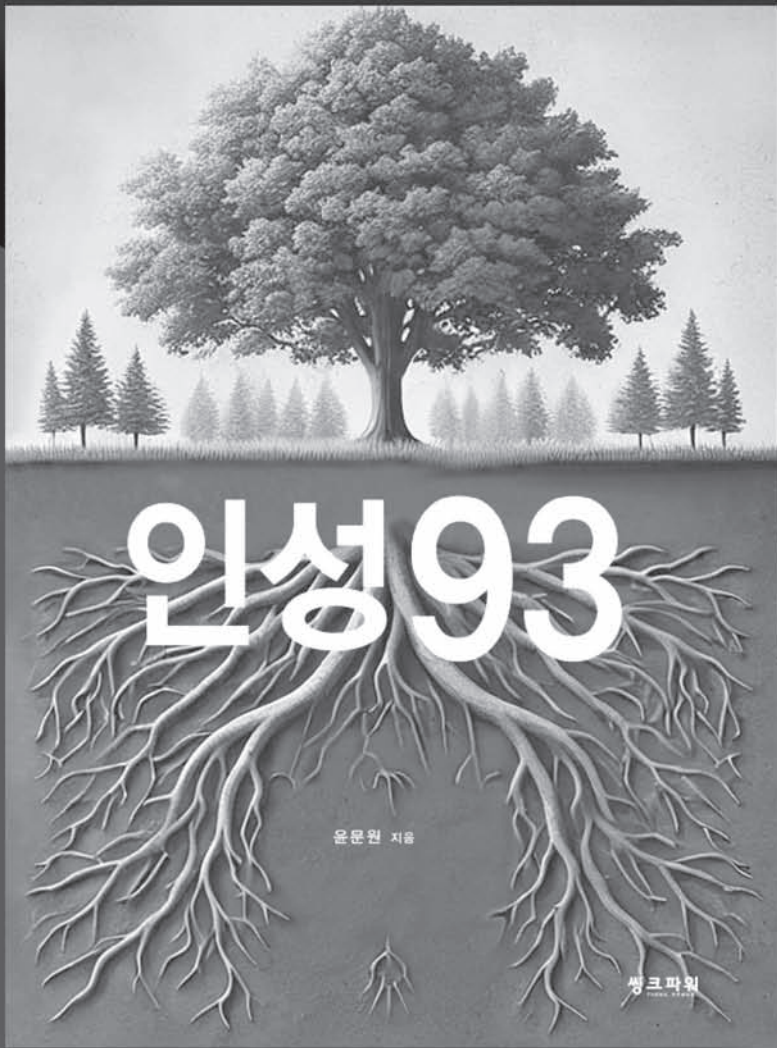
먼저 올 하반기 공청회와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준비학교(5개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준비학교는 학생생활규칙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조항 개정, 오프라인 대체 프로그램 개발, 가정·지역사회와 연계 교육 강화, 성과 분석 및 확산 등의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참여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운영모델을 표준화해 전북형 디지털 균형 교육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은 “스마트폰 심표학교는 스마트폰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라며 “학교와 가정, 지역이 함께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저자 윤 문 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쌤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팡,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서점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한다.

제15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야한다.

殷字·東夷·韓民族 이야기

寧, 메주가 익어가는 ‘뜨락’에서 찾은 진정한 안녕(安寧)

우리는 무사히 잘 있는 상태를 안녕(安寧)이라 묻는다. 여기서 편안할 념(寧)자는 흔히 마음(心)이 편안한 상태로 풀이되곤 한다.

하지만 한자의 가장 오래된 모습인 갑골문과 금문을 추적해보면, ‘안녕’의 실체는 추상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집안 깊숙한 곳에서 구수한 메주가 익어가는 ‘물질적 풍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丁(정)’의 비밀: 깊숙이 박히고 쌓이는 생명력

저(宀·저)와 념(寧)의 자형은 관통하는 핵심 요소는 못 정(丁)자다. 오늘날에는 ‘못’으로 쓰이지만, 본래는 무연가 ‘깊숙이 박히는 것’ 혹은 ‘단단하게 채워진 덩어리’를 뜻한다. 이 ‘덩어리’가 집(宀) 안의 그릇(皿)에 담겨 있는 모습이 바로 념(寧)의 원형이다. 그렇다면 고대인의 집안 그릇에 담긴 그 단단한 덩어리는 무엇이였을까. 바로 우리 민족의 생명줄과 같았던 메주다.



■ 메주를 ‘쌓고(貯)’, 기운을 ‘띠우(寧)’ 공간

흥미롭게도 우리말에서 마당을 뜻하는 ‘뜰’이나 ‘뜨락’은 메주를 ‘띠우느’ 공간과 그 궤를 같이한다.

쌓을 저(貯): 메주를 차곡차곡 깊숙이 쌓아 갈무리하는 행위다.

뜰 저(貯): 발효를 통해 메주의 기운이 위로 몽글몽글 떠오르는 과정을 담고 있다.

결국, 념(寧)은 잘 띄운 메주가 집안 가득 쌓여 있는 풍경이다. 『실문해자』 시기에 이르러 ‘마음 심(心)’이 추가되며 철학적 의미로 변모했지만, 본래의 안녕은 “먹거리가 곳곳에 가득 차

몸과 마음이 든든한 상태”를 의미했던 것이다.

■ 문화의 뿌리로 복원하는 문자의 생명력

이처럼 한자의 원형을 추적하는 과정은 단순한 문자 해독을 넘어 우리 문화의 뿌리를 복원하는 일이다. 우리 민족만이 공유하는 ‘메주를 띄우다’라는 감각을 통할 때, 비로소 寧(寧)이라는 글자에 흐르는 막힌 혈관이 뚫린다. 집안의 뜨락에서 메주가 잘 익어가는 소리를 듣는 가장(家長)의 마음, 그것이 바로 고대인이 정의한 진정한 ‘편안함’이었다.

■ 풍요가 뒷받침된 평화

현대 사회에서 ‘안녕’은 지나치게 심리적인 위안으로만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寧의 원형이 보여주듯, 진정한 평화는 삶을 지탱하는 구체적인 풍요(메주)가 곁에 있을 때 완성된다.

오늘날 우리의 ‘뜨락’에는 무엇이 익어가고 있는가. 수천 년 전 메주 덩어리에서 평안을 읽어냈던 선조들의 통찰을 빌려온다면, 우리의 안녕 또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의 소중한 먹거리와 온기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유우균
◇ 교육연방신문 주필

봉선화 물들이기

구운 알둔 아버지,
육상 봉선화를 따 말려
절구에 정성스레 찧다.

이순 알둔 딸,
손가락과 발가락에
꽃을 물리고
어머니는 실로 살면서 묶는다.

딸의 고운 모습에
모녀는 함께 웃는다.
붉은 꽃비취럼
사랑이 번져간다.

노을빛 속,
시냇은 살짝 눈길로 보낼 뿐
지름, 이 순간,
눈물 나도록 아름답다.



■ 구본희
◇ 前인천국제고등학교 교장

전 재 학 의 교 육 칼 럼

대학 간판을 떼쳐낸 SK하이닉스, 그럼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학교는 SK하이닉스가 던진 학벌 철폐의 공을 받아 안는 학교로의 구습 타파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최대원 SK그룹 회장은 AI 시대를 지배할 인류의 생존 조건으로 아주 독특한 “3대 근육”을 제시했다. 그것은 헬스장의 바벨을 들라는 게 아니라, 미래 인재가 반드시 탑재해야 할 “세 가지 정신 근육”이다. 첫째, ‘생각 근육’으로 AI에게 제대로 질문하고 답을 융합하는 비판적 사고력이다. 둘째, ‘적응 근육’으로 기술 격변의 파도 속에서 빛의 속도로 변신하는 유연성이다. 셋째, ‘공감 근육’으로 기술에 인간성을 불어넣고 타인과 연대하는 소통 능력이다.

이 발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AI 반도체의 심장인 SK하이닉스가 전격적인 행동에 나서 신입사원 채용에서 수십 년간 당연시되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이라는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했

다. 즉, 고졸이든 대학 중퇴든 상관없이, 최 화장이 말한 3대 근육만 쫓잡한다면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한민국 최고의 일터로 채용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그동안 말로만 “학벌 철폐”를 외치던 사회에 던진 거대한 폭탄이자, 대학 간판만 믿고 안주하던 교육계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리친 유쾌한 인간 승리 선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까운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80년 전 삼성 그룹은 이미 학벌 철폐의 선도자로서 발걸음을 떼었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력서에 출신 학교를 가리는 ‘블라인드 채용’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 다른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즉, 이력서에서 간판을 지웠더니, 제한된 시간 내에 눈에 띄

는 ‘말만 번지르르한 지원자’나 ‘고액 사교육으로 찍칠된 외부 스펙’자가 합격하는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밤낮 코피 쏟아 명문대에 간 학생들은 “내 학창 시절의 성실함을 증명할 기회조차 빼앗겼다”며 역사별을 호소했고, 일부 기관에서는 주관적 평가 개입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하이닉스의 이번 결단이 본격적인 ‘학벌 철폐’와 ‘인재 혁명’으로 이어지려면, 이제 학교 교육의 판 자체를 새로 짜는 획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첫째, ‘생각 근육’ 단련을 위해 오픈 AI ‘피신(Piscine)’ 프로젝트의 운영이다. 프랑스의 혁신적인 IT 교육기관인 ‘에콜 42(Ecole 42)’에는 교수도, 교재도, 주입식 시험도 없다. 오직 동료들과 한 달간

맨땅에 헤딩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피신(Piscine, 수영장)’이라는 서바이벌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진짜 역량을 길러내고 있다. 우리의 학교 평가 기준도 ‘암기한 정답’이 아니라, AI에게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힌트를 얻고, 이를 어떻게 자신만의 논리로 융합하는가의 과정이어야 한다.

둘째, ‘적응 근육’ 단련을 위해 ‘학년 팝업(Pop-up :경계 파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 오토매틱(Automatic)은 채용 전, 지원자들에게 몇 주간 실제 직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맡겨 이들이 새로운 툴과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를 검증한다고 한다. 교육도 이 방식을 적용해 아침에는 로봇 공학 프로젝트를 하

다가, 오후에는 기후변화 뮤지컬을 제작하는 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학년의 경계를 넘어 매년 바뀌는 동료와 낯선 과제 속에서 뒹굴어보야, 어떤 위기가 와도 카멜레온처럼 ‘적응 근육’이 생긴다는 사고에 근거한 것이다.

셋째, ‘공감 근육’ 단련을 위해서 ‘동료 평가(Peer Review)’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Tesla)는 인재를 뽑을 때 아무리 천재라도 독불장군이거나 팀워크를 해치는 자는 가차 없이 탈락시킨다고 한다. 철저히 동료들의 다면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제 학교 성적표에서 교사의 주관적 평점이나 줄 세우기식 등급을 지워야 한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서로의 협업 태도와 인성을 평가하는 동료 평가 시스템을 공교육 성적의 핵심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이 스펙 성형외과를 찾아다니며 자소서에 넣을 형식적인 위장 줄글을 만드느라 청춘을 낭비하는 대신, 매일 아침 자신만의 ‘생각과 적용, 그리고 공감’을 기술 아령을

들어 올리는 학교, SK하이닉스가 던진 학벌 철폐의 공을 받아 안는 학교로의 구습 타파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작년 고1 학생 1만 명이 넘게 자퇴한 우리의 학교는 아이들의 책가방 속에 스트레스 유발의 시험지만 잔뜩 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대신 ‘미래를 살아갈 단단한 근육’ 즉,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할 때라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장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최 윤 용 의 100세 칼 럼

피부로 드러나는 전신 염증의 신호 건선,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면역 불균형 정상화

1.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닌 전신 면역 질환, 건선 - 건선(psoriasis)은 단순한 표피의 문제를 넘어,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면역 체계의 조절 장애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전신 염증성 질환입니다. 임상적으로는 경계가 뚜렷한 붉은 반점 위에 은백색의 두꺼운 각질이 덮이는 것이 특징이며, 심한 가려움과 통증을 동반합니다. 병태생리학적으로 건선의 핵심은 선천성 및 적응성 면역 체계의 비정상적인 활성화, 특히 IL-23/Th17 축(axis)의 조절 이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치상세포 등에 의해 분비된 인터루킨-23(IL-23)은 Th17 세포의 분화와 생존을 촉진하며, 활성화된 Th17 세포는 IL-17을 비롯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과다 분비합니다. 이러한 염증 매개체들은 각질형성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지속시켜 건선 특유의 두꺼운 각질 판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2. 기존 약물 치료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 현재 건선 치료에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비타민 D 유사체와 같은 바르는 약부터 메토트렉세이트(MTX), 사이클로스포린 등의 전신 면역억제제, 그리고 특정 염증 경로를 차단하는 생물학적 제제(Biologics)가 널

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IL-17이나 IL-23을 표적으로 하는 최신 생물학적 제제는 중증 건선 환자에게서 피부 병변을 개선하는 단기적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같은 합성약물 치료만으로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물학적 제제는 높은 치료 비용으로 인해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장기 사용시 약물 내성이 발생하거나 효능이 감소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널리 활용되어오던 전신 면역억제제는 간독성이나 골수 억제와 같은 부작용의 위험을 동반하며, 국소 스테로이드제의 장기 사용은 피부 위축이나 모세혈관 확장과 같은 비가역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물 투여를 중단할 경우 높은 확률로 증상이 재발한다는 점은, 증상 완화를 넘어선 근본적인 면역 항상성 회복과 관련한 새로운 치료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3. 건선과 밀접하게 얽힌 ‘전신 대사 증후군’과 ‘장-피부 축’ - 최근 학계에서는 건선을 단순한 피부병이 아닌 심혈관계 질환, 비만, 대사 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등과 동반되는 전신 질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선 환자의 체내에서 지속되는 만성 염증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 장애를 유발하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래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피부의 염증성 질환에 기여한다는 ‘장-피부 축(Gut-skin axis)’ 이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장내 점막 장벽의 기능이 저하되면 미생물이나 대사 산물이 혈류로 유입되어 전신 염증 반응을 촉발하고, 이는 다시 Th17 세포 분화와 IL-17 발현을 통해 건선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는 건선 치료가 피부 표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체내 대사 및 면역, 장내 환경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말해줍니다.

4. 건선에 대한 효과적 대안: 침, 뜸, 한약 치료의 현대 과학적 근거 - 최근 기존 약물 치료의 효과를 보완하고, 전신 면역 체계의 종합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조명받고 있으며, 다양한 현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작용 기전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먼저, 널리 활용되는 약물인 전신면역억제제인 메토트렉세이트에 전침(Electroacupuncture)을 병행한 치료는 피부 병변과 염증을 기존 약물 단독 치

료보다 더욱 강력하게 완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침 치료는 피부와 림프절에서 병원성 Th17 세포의 비율을 낮추고, 반대로 면역 반응을 진정시키는 조절 T 세포(Treg)의 빈도를 현저히 증가시켜 Th17/Treg 면역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뜸(moxibustion) 치료는 건선 병변에서 세포 증식 및 발판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키고, 혈관의 비정상적인 과다 증식을 억제하며, IL-8, IL-17A, IL-23과 같은 전염증성 인자의 발현을 뚜렷하게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건선은 면역계의 이상, 피부 세포의 과증식,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 그리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복합 질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중 경로(multi-pathway)를 동시에 조절하는 한약 치료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각종 피부 질환에 널리 활용되어온 여러 한약 처방의 활성 성분은 여러 병리 표적에 대한 동시조절 기전을 통해 건선을 치료합니다. 예를 들어, 커큐민(curcumin), 바이칼린(baicalin) 등의 성분과 다수의 한약 처방이 NF-κB, MAPK, PI3K/AKT 및 IL-23/IL-17 신호 전달 경로를 동시에 억제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차단하고 각질형성세포의 과다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규명되어 있습니

다. 더 나아가, 복합 한약 처방은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그치지 않고 ‘장-피부 축(Gut-skin axis)’에 작용하여 무너진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을 회복시키고 전신 대사 장애를 바로잡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신바와 같이 한의 치료는 면역 조절, 항염증, 혈관 신생 억제,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 등 신체 전반의 불균형을 총체적 관점에서 바로잡는 효과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근거가 갖춰져 있습니다.

5. 약물 의존을 줄이는 일상 속 건선 자가 관리법 - 성공적인 건선 관리를 위해서는 임상적 치료와 더불어 환자 스스로의 생활 습관 및 식단 교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 지중해식 식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과일, 채소, 통곡물을 강조하는 지중해식 식단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식단에 풍부한 오메가-3 고도불포화지방산과 폴리페놀은 전신 염증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유익합니다.

· 체중 감량 및 저칼로리 식단: 비만은 건선의 진행 및 중증도 악화와 강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과체중 또는 비만인 건선 환자가 저칼로리 식단을 통해 체중을 감량할 경우, 건선 중증도 지수(PASI)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기존 치

료에 대한 반응률이 높아집니다. · 간헐적 단식: 식사와 단식 시간을 조절하는 간헐적 단식은 아디포넥틴 분비를 증가시켜 국소 및 전신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 관찰에서도 한 달간의 간헐적 단식이 건선 환자의 PASI 점수를 유의하게 낮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글루텐 프리 식단: 셀리악병을 동반하거나 항글리아딘 항체(antigliadin antibodies)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건선 환자의 경우, 글루텐 프리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선 중증도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선은 평생에 걸쳐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삶의 질을 위협합니다. 전신의 면역 균형을 다스리고 피부의 과도한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과학적 한의 치료와 올바른 식이 관리를 병행한다면, 붉은 반점과 각질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피부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최윤용
◇ 큰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주)옴생약 대표이사



제작부터 설치까지, 믿을 수 있는 가구 전문기업 월드퍼니처

- ✓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및 연계고용 부담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 설계부터 제작·납품·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토탈 가구 솔루션 구축!!
- ✓ 학교·관공서·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선택한 가구 전문기업!

ESG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월드퍼니처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여성기업

여성의 도전과 성장이 만드는 가치 있는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는 기업

학생 공간에 꼭 맞춘 안전한 가구 솔루션!!



학생 중심의 교실 가구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한 교실가구



탐구력을 키우는 과학실 가구

안전한 실험 환경을 완성하는 과학실 가구



독서와 배움의 공간 도서관 가구

지식과 배움이 자라는 공간, 도서관 가구

상담 및 문의

worldfurni.com

1 5 8 8 - 3 8 8 6

공간에 맞는 가구의 정답, 월드퍼니처!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